

뮤지컬 '팔만대장경' 세계무대로

11월8~14일 예술의전당서 국내공연 2000년부터 日·佛·英등 10여국 순회

불심의 혼으로 빚어진 우리 영혼의 소리 '팔만대장경'이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에 선보여 진다.

지난해 '장보고'로 세계 순회 공연을 가진 극단 현대극장은 11월 8일~14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불교 창작 뮤지컬 '팔만대장경' (극본 김의경, 연출 이종훈)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으며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나라만 해도 일본, 필리핀, 프랑스, 영국, 이태리 등 10여개 국에 이른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은 극본 제32호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호법(護法), 호국(護國), 호민(護民)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을 화

두로 삼은 시대극. 이번 공연은 불법(佛法)에 의지해 나라를 지키려는 고려인의 호국 의지와 고려 여성의 강인하고도 깊은 희생 정신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대사시사로 구성됐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의 무대는 몽고군의 침입이 있었던 13세기. 전쟁중 장경을 지키려다 죽은 목각장이의 아들 비수가 전쟁통에 알 못보는 여동생을 잃은 뒤 대장경을 관각하기 위해 강화도로 향한다.

그는 고려의 최고 권력자 최이의 딸 묘화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가 만전의 간계에 걸려들어 눈물로 묘화를 떠나 보낸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관각에만 몰두하던 비수와 여성이 된 묘화는 대장경이 봉안되는 날 운명의 재회를 하지만 이들



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출연진도 웅장한 공연 규모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화려한 경력의 김원정·여현

구·현광원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캐스팅 됐고 중견 탤런트 겸 연극배우 김성원과 김진태, 뮤지컬 배우 김장섭 등이 등장한다. 여기에 브로드웨이에서 손꼽히는 음악감독 조셉 베이커와 데이비드 린드가 편

곡·음악 담당자로 가세한다. 극본을 맡은 김의경씨(서울시립극단장)는 "참락을 했던 몽고는 현재 미미해졌고 여러번 수난 당한 우리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지력 때문"이라며 "이번 작품은 동양 사상의

◇고려인의 호국의지와 천년의 세월속에 묻힌 슬픈 사랑이야기가 대사시사로 엮어진 뮤지컬 '팔만대장경'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뮤지컬 '팔만대장경'의 연출 장면.

정수인 불교문화와 한국인의 손꼽히는 정서인 한(恨)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02)762-6194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加·美 박물관에 한국관 최근 개설 국제교류재단 '큐레이터 워크숍' 열어 해외 한국문화재 보존 '청신호'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9·10월 연이어 한국관이 개설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처음으로 해외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를 초청하는 등 해외 한국문화재 보존·전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8월 문을 연 캐나다 토론토의 로얄 온타리오박물관 한국관은 캐나다에서의 첫 번째 한국문화재 전용 전시관. 60여평 규모의 한국관에는 온타리오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700여점의 한국 미술품 가운데 금동불상, 고려 청자, 조선분청사기 등 200여점을 전시한다.

미국 서부지역 최대 미술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도 10월 3일 한국관을 개설한다. 카운티미술관은 지난 연말부터 아먼스관(館) 지하1층에 60여평 규모의 한국관을 신설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 3일 개관과 함께 한국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한 미술품 등 국보급 140여점을 상설 전시하게 된다.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7일까지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 등 9개국 박물관의 한국담당 큐레이터 23명을 초청, 한국유물의 효과적인 해외전시 및 문화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제1차 해외박물관 한국관 큐레이터 워크숍'을 열고 있다.



◇8월 개원된 캐나다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전경.

현재 해외에 산재한 한국 미술품은 총 7만여점이며, 한국관이 설치된 해외 주요박물관은 16개국 52개처. 그러나 한국관 전담 큐레이터가 있는 곳은 대영박물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프랑스 기메박물관, 또 4개 박물관 중 한국미술사 전문 큐레이터가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에 불과하다. 즉 큐레이터 대다수가 중국이나 일본 미술 전공자인만큼 한국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전시내용과 규모도 부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평목적인 반환운동보다는 해외 박물관내 한국관 설치 및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해외소재 문화재를 현지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향피리 연주곡 '산승' 발표 무안스님

"음악삼매 빠져 곱 잇으세요"

"번뇌와 고(苦)가 많고 더욱 삭막해지는 이 사회를 음악으로 정화하고 포교하고자 합니다."

자작시에 향피리만으로 음률을 붙여 안은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곡 '산승'을 발표한 무안스님(천태종 정안사 주지). 국악기중에서도 가장 배우기도 불기도 어렵다는 피리, 스님은 향피리가 당피리와 같이 구멍이 8개이나 둘레 구멍이 뒤에 있는, 길이가 짧은 피리로 한층 애절하면서도 강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 대금을 보다 피리에 심취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스님은 애절하면서도 심오한 음을 내는 향피리의 소리에서 현대인들이 고향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심오한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와 곡을 썼다고 말한다. '산승'은 합창이나 독창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금방따라 부를수 있을 정도로 쉽고 무난한 노래이다. 주석하는 정안사에 신도들이 찾아오면 향피리를 연주하며 함께 음악삼매에 든다는 무안스님은 현재 작곡중인 '강물의 여운' 등 향피리와 대금을 이용한 곡을 더 만들어 내년 이맘때쯤 피리로만 완성된 음반을 낼 생각이다. 피리외에도 대금, 서예, 달마도, 단청, 광고디자인 등 여러 방면에 능한 무안스님은 지난 8월 월간 <문화공간>으로 등단한 승려시인이기도 하다. 스님은 '산승'을 비롯 그동안 쓴 시를 묶어 오는 11월 시집도 출간한다.

이경숙 기자(gilee@buddhania.com)



◇향피리를 불고있는 무안스님.

문화재 안내판 읽기쉽게 교체

문화재청, 시·도에 정비지침 보내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로 이뤄져 있는 전국의 모든 문화재 안내판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래된 기존 안내판을 어려운 용어만 한글로 풀어헤쳐 교체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안내문인의 정비, 문안집필 및 감수, 영문번역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마다 개별관리코드를 매겨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정비까지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했고 설치형태도 문화재 및 주변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자율화한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정비지침을 각 시·도에 보내 안내판 실태를 파악한 뒤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경관 등 세계유산과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서둘러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은 국가지정 1천767건, 시·도지정 3천588건, 공·농·원 178건 등 모두 5천533건에 설치돼 있다.

오종욱 기자

2000년은 '새로운 예술의 해'

문화부 선정

문화관광부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을 장르를 불문하고 새로운 예술의 영역과 방향 및 흐름을 모색토록 지원한다는 뜻에서 '2000, 새로운 예술의 해'로 선정했다. 문화부는 그 동안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와 문화부 정책자문기구인 '문화비전 2000추진위원회'의 총 4차례에 걸친 회의결과를 토대로 미술·음악 등 특정 장르만을 선정,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 예술장르를 통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예술의 해'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예술'에 밀려나는 전통문화예술의 운명과 급조된 조직위원회의 출중 행정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김대식씨 사진집 출간

경주 남산 부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은 사진집 <경주 남산, 천년 전의 얼굴들>(미술세계 펴)이 출간됐다.

작가 김대식씨가 지난 한 해동안 경주 남산 유적지를 돌며 렌즈에 담은 불상 상호를 엮은 <경주 남산...>에는 1백여점의 사진작품이 실려있다. 김씨는 "남산의 불상 상호는 경전에서 말하는 '80종호'라기 보다는 다양한 민초의 얼굴을 형상화 한 민불(民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창배씨 '한국의 달마' 전

선화집 <한국의 달마>를 펴냈던 단원 김창배 화백이 9월28일부터 24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한국의 달마'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출처는 달마' 등 김화백이 새롭게 시도한 달마의 모습을 비롯 다양한 표정의 달마 1백8점이 소개된다. 전시회는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해



◇김창배작 '웃는달마'

변 공연장 미술관에서 연장 전시된다. (02)736-7445

박윤희씨 서예대상

경남도 주최 미술대전에서 박윤희씨(41·전남 곡성군 개천면·사진가 법규경)가 '법규경'로 서예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총 932점이 출품된 이번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씨는 10여년간 고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펴온 원력불자. 지난 84년부터 서예를 시작한 박씨는 그동안 동아미술대전 입선과 월간 서예 입선, 국선 입선 등의 수상을 했다. 시상식은 18일 10시 경남도문화회관.

범어사 성보 '지방문화재 지정'

부산시는 3일 범어사 소장 전적류 1천여종 3천여책, 목판 2백여판 등을 최종 심의하고 목판류 6종 182판, 문화재자료 4종 4점 등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했다. 지정된 문화재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태조조에 제작된 <삼국유사> 권4~5. 현재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유사와 동일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평가(본지 234호 7면 참조)된다. 이번에 심의된 대상은 총 22종 283건의 유물이며 심의문화재 모두 지정되는 선례를 남겼다. 범어사에서도 이번 심의결과에 주목, 소장 유물의 재평가 및 추가 발굴 유물의 수급 등에도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승가원-19일 관음사 '음악회'

가을을 맞아 산사와 도심에서 풍성한 음악회가 열린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현성)과 강북구청은 17일 저녁 7시 수유여중에서 '제1회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는 구피, 도원경, 크라이너트 등 록과 밴드그룹들이 대거 출연해 사랑 나누기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크라이너스(은곡공고), 몸부림 S(서울외고), 락(수유중) 등 청소년 그룹들도 함께한다. (02)928-0750

19일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에서는 '99 가을 산사 음악회'가 마련된다. 경내에서 펼쳐질 이번 음악회에는 대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등 9명으로 구성된 국악 관내악단 '신모듬'의 연주와 성악가 정윤성님의 음성 공양도 펼쳐진다. (0431)256-6254

감사의 말씀

호국참회 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제 14대 주지 광복스님 진산식이 지난 9월 6일 성대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 고산스님을 비롯해 중회 호계원, 교육원, 포교원 등 종단 주요기관 및 제방의 중진 대덕스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를 보내주신 가운데 신임 주지 광복스님은 정화불사로 한국불교를 중흥하신 청담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의 화합 속에서 포교 도제양성 복지불사에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제방의 스님들과 신도님들께 우선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43년 9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백창기회장 취임법회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백창기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가불자들이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한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중앙신도회의 힘찬 출발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43(1999)년 9월 16일(음력 8월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조계사 대웅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대 백창기 회장 취임법회 공동준비위원회 최동원·오희창·명호근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3층 전화 02-733-7277 팩스 02-733-7278